월간 SW 산업 동향

2012. 6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Summary ····· 1

Ⅱ. 월간통계 ·····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 5
2. SW산업 관련 통계 ····· 7

Ⅲ. 국내외 정책 동향 ····· 15
1. 국내 ····· 16
2. 해외 ····· 24

Ⅳ.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28
1. 부문별 시장 동향 ····· 29
2. SW 기업동향 ····· 38

Ⅴ. 주요 리포트 ····· 44
1. 한국 기업의 Open&Global R&D 추진현황과 선도사례 … 45
2. 소셜미디어의 힘: '잠자리효과(The Dragonfly Effect)' … 50

Ⅵ. 월간 SW 이슈 분석 ····· 55
1.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자 경험 전략 ····· 55
2. 모바일 지도 전쟁 ····· 59

Ⅰ. Summary

◆ 월간 통계

- 2012년 5월 SW 생산액은 2조 4,323억 원, 수출액은 1억 9,748만 달러
- 올해 IT컨설팅 시장, 5,376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5% 저조한 성장 (IDC)
-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09년에는 6,670만 달러, 2010년에는 1억4,876만 달러로 매년 급증 (행정안전부)
- 세계 ITS 시장은 2015년 185억6,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한국ITS학회)
- 한국, 클라우드 경쟁력 세계 8위 (BSA)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분야 특허출원 급증 (특허청)
- 향후 3~5년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셜 미디어 관련 기술 (IBM)
- 세계 보안 시장, 상반기 점유율 혼전세 지속 (OPSWAT)
- PC 다섯 대 중 한 대, 백신 프로그램을 미사용으로 보안 위협에 노출 (맥아피)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추진, 「SW R&D 체계 개편 방안」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 운영 개시, 선박 및 조선 IT융합분야 국제표준 주도, 실리콘밸리 IT업계 한국인 청년 인재 간담회 개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발표
- (행정안전부) 20억 이상 공공정보화 PMO 도입 논의, 1,000억 규모 정부통합백업센터, 연말 공주서 착공, 도로명 주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 2회 연속 전자정부 1위 경제효과 3조8천억 원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표, 스마트 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논의, “ICT 올림픽” 개최 준비 본격 추진
- (국토해양부) 새로운 지능형 국토포털 서비스를 실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안전IT시스템 국제 표준 만듦
- (문화관광부) SW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생 한마당 개최
- (국방부) 국방 정보시스템 SW표준 플랫폼 개발
- (美) 연방항공국(FAA) 8만여 직원, 클라우드로 업무 환경 전환,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플랜 X’’ 전략 추진, 메사추세츠 정부, MIT와 협력해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추진, 국방부, 모바일 전략 보고서 발표, 총무처, 연방 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할 FedRAMP 실행
- (日)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도입
- (영국) 중소 사업자를 위한 IT 보안 실행지침 마련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ERP) 올 하반기 국내 대표 물류 기업들의 차세대 글로벌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이 잇따라 완료

○ (CRM)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고객 관리 솔루션 출시

○ (SCM) 효율적 공급망관리를 위해서는 전사 관점에서 '아웃사이드-인' 전략유지가 중요

○ (BI) IT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델은 지속 불가능

○ (IT서비스)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한 IT기업들의 '빅데이터' 시장 공략이 한층 치열, IT서비스업체들의 사업영역 다각화

◆ 주요 리포트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현황과 선도사례 분석」, 삼성경제연구소('12. 6)

-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발원천을 다양한 Open & Global R&D를 통해 혁신의 원천을 외부나 해외로 확대

○「소셜미디어의 힘: 잠자리 효과(The Dragonfly Effect)」, 포스코경제연구소('12. 6)

-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잠자리 효과 모델 적용 필요

◆ 월간 SW 이슈 분석

< 스마트 폰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자 경험 전략 >

○ 스마트폰 확산으로 이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경험 제공이 중요해짐

○ 이용자들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변화를 비즈니스에 활용

< 모바일 지도 전쟁 >

○ 구글과 애플의 IT지도 플랫폼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

○ IT공간이 향후 포탈에 버금가는 거대 수익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시장을 놓고 최강자 기업들이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음

Ⅱ. 월간통계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5월 SW 생산액은 2조 4,323억 원,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 패키지 SW 생산액은 3,32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증가

-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ERP, CERM, SCM 및 BI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 IT서비스 생산액은 2조 99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 경기둔화 등으로 성장폭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IT서비스 업계는 내수시장 포화와 공공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 공략을 통한 사업 영역 다각화에 나서고 있음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패키지 SW	2012년	3,002	3,273	3,853	3,151	3,325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증감	12.5%	18.2%	21.8%	8.1%	16.6%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증감	7.6%	6.4%	-0.8%	5.1%	1.5%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증감	**8.3%**	**8.0%**	**2.2%**	**5.5%**	**3.3%**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6)

나. SW 수출액 분석

□ 2012년 5월 SW 수출액은 1억 9,74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2.0% 증가

○ 패키지 SW 수출액은 4,55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2% 증가

- BI 및 의료 솔루션의 중국, 미국 진출 등 해외 대규모 시장 공략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패키지SW 수출액이 전월 대비 두 배 가량 증가

○ IT서비스 수출액은 1억 5,19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증가

- 전자정부 수출 증가와 함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도서관, 모바일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증감	-4.9%	14.1%	-10.4%	28.6%	102.2%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증감	5.6%	10.0%	5.6%	36.9%	76.7%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증감	**3.2%**	**10.9%**	**1.8%**	**35.4%**	**82.0%**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6)

2. SW산업 관련 통계

가. 국내 기업 IT투자 동향

□ 올해 IT컨설팅 시장, 5,376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5%의 저조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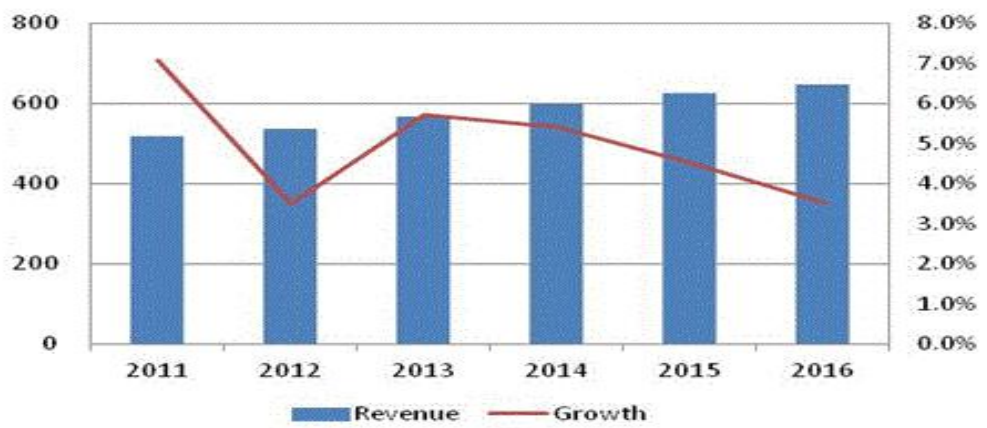
○ (IDC) 전체 IT서비스 시장의 성장 둔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성장세 조정 양상이 나타남

- 클라우드, 모바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같이 신규 수요 확대에 동력이 되는 다양한 요인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세 조정 양상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

○ 장기적으로 IT컨설팅 시장은 회복세로 전환될 것

- 2013년 경기 여건의 개선과 대선 이후 불확실성의 완화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와 융합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 증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CAGR) 4.5%의 성장률로 6,482억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내 IT컨설팅 서비스 시장전망 (2012-2016년), (단위:10억 원)



자료: IDC(2012. 6. 12)

나. IT서비스 전자정부 수출 동향

□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09년에는 6,670만 달러, 2010년에는 1억4,876만 달러로 매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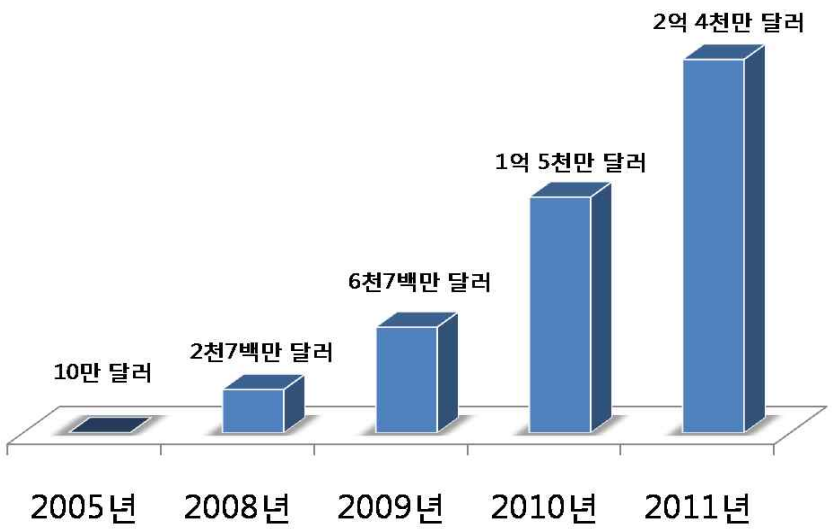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삼성SDS, LG CNS, SK C&C, 대우정보시스템 등 IT 서비스 기업들이 전자정부 수출을 견인

- 내수 시장의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전자정부 이외에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스마트 도서관, 모바일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성과

○ 올해 IT서비스가 수출 부문으로 본격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일부 IT서비스 기업들은 올해 해외 매출 목표를 전체 매출의 20~30%로 책정하는 등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

전자정부 수출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12. 6. 11)

다. 국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시장 동향

□ 세계 ITS 시장 확대에 따른 정부·기업의 해외 시장 공략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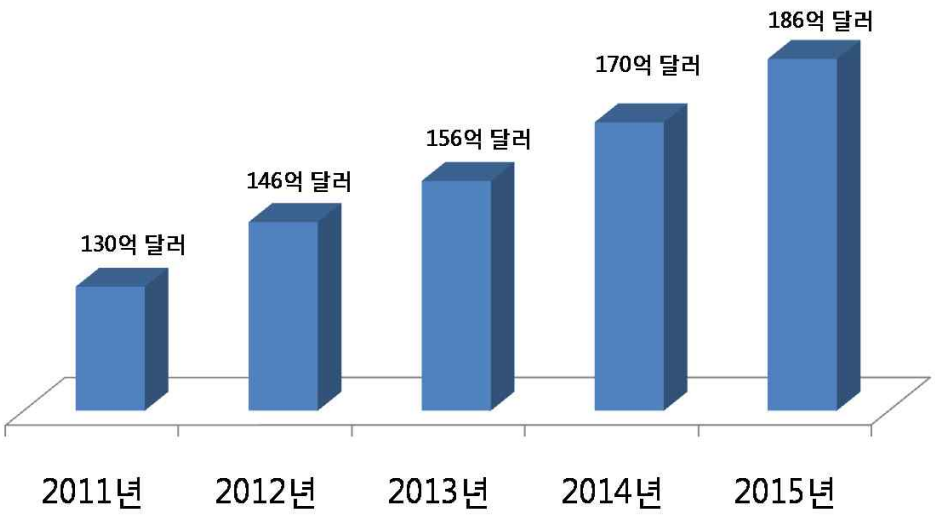
○ (한국ITS학회) 세계 ITS시장은 2015년 185억6,000만 달러의 규모로 연평균 10%가량 성장할 전망

- 중국시장은 다른 나라의 두 배인 연평균 18.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민·관·연 공동 노력이 필요

○ 국내 ITS 시장은 정부 예산이 감소세에 있음

- 2009년 1,578억 원에서 2010년 832억 원, 2011년 748억 원, 2012년 500억 원 미만으로 계속 감소
- 국내 내수 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활성화 전략이 필요

세계 ITS 시장 성장 추이



자료: 한국ITS학회 (2012. 6. 22)

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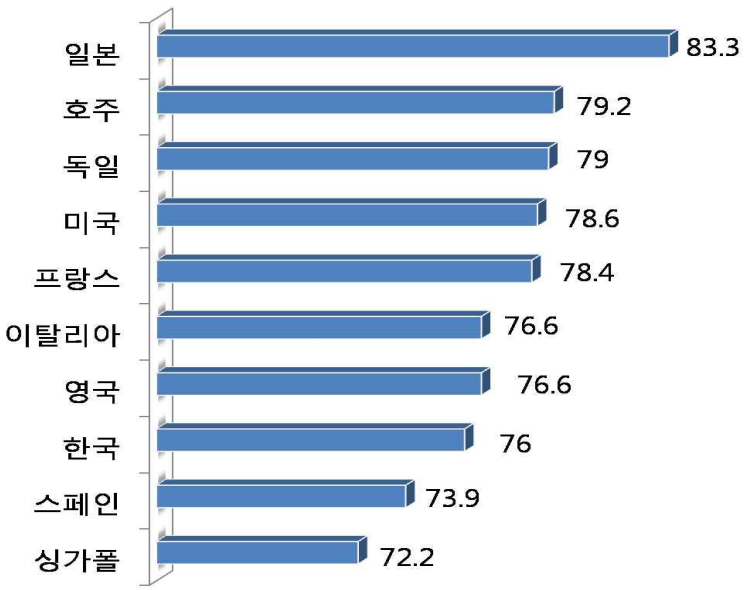
□ 한국, 클라우드 경쟁력 세계 8위

○ (BSA)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 상황, 세계 24개국 중 8위 기록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최고 점수를 기록, 사이버 범죄 분야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준비상태는 일본(83.3점)이 1위, 호주(79.2), 독일(79.0), 미국(78.6) 순이며, 한국은 76점을 얻어 영국(76.6)에 이어 8위 기록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 ICT준비상태와 광대역 구축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지원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7개 정책 범주를 기준으로 24개국을 평가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 경쟁력 평가 상위 10개 국가 점수 분포



자료: BSA (2012.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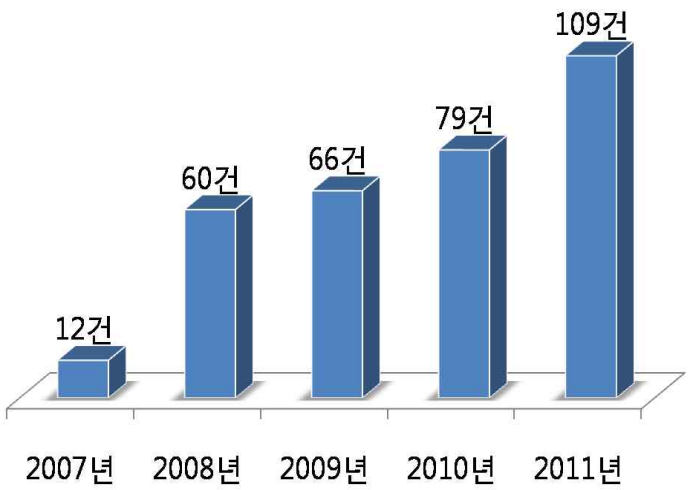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분야 특허출원 급증

○ (특허청)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보안기술의 특허 출원이 최근 5년 사이 지속적 증가세

- 지난 2007년 10여 건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허 출원이 2008년 60여 건, 2011년에는 109건으로 증가
- 출원인별로는 개인 7%, 대기업 15%, 중소기업 16%, 연구소 및 대학교 20%로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42% 정도로 비교적 많았음

○ 데이터 센터 운영, 침해 대응, 애플리케이션 보안, 암호화와 키 관리, ID와 액세스 관리, 가상화 기술 등이 다수 출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보안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자료: 특허청 (2012. 6. 19)

마. 세계 소셜 미디어 관련 기술 동향

□ 향후 3~5년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셜미디어 관련 기술

○ (IBM) 전 세계 CEO의 71%가 향후 3~5년간 조직의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 요소로 '기술'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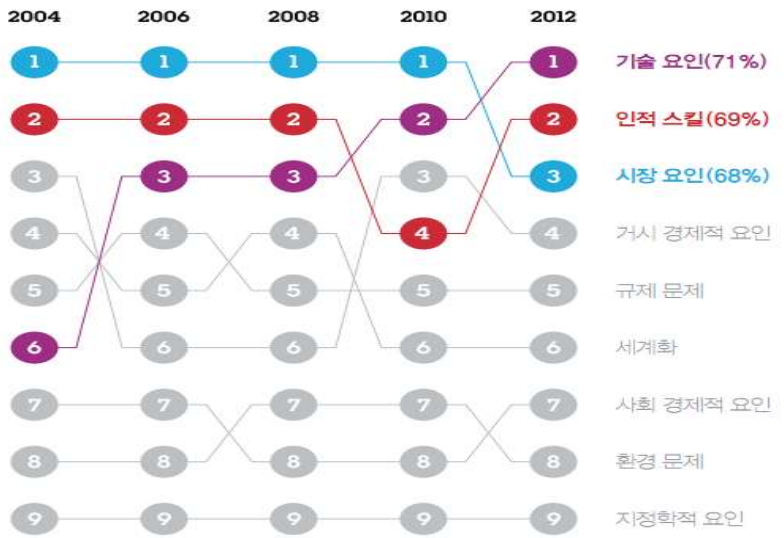
- 특히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관련 기술이 변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

○ 기업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방성을 지적

- 개방성은 소셜미디어를 협업과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이러한 협업과 혁신은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고객과 소통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CEO는 전체의 1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3~5년간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CEO들이 선택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소



자료: IBM (2012. 6. 26)

바. 세계 보안시장 동향

□ 세계 보안 시장, 상반기 점유율 혼전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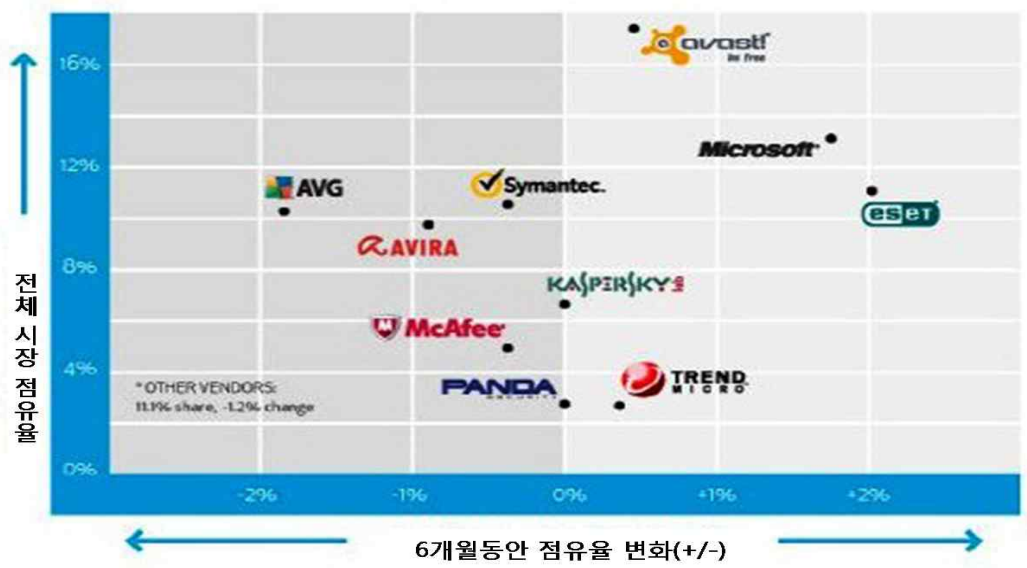
○ (OPSWAT) 백신 프로그램 상반기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어베스트가 1위

- 전체 시장에서 17.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
- MS는 자사 백신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에센셜(MSE)로 지난해 10.08%로 전체 4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13.2%로 2위를 올라서며 폭발적인 성장세
- MS에 뒤를 이어 ESET가 11.2%, 시만텍이 10.3%, AVG 10.1%로 시장에서 활약

○ 어베스트가 꾸준히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프리미엄(Freemium)'이라는 무료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했기 때문

- 무료 백신 프로그램을 먼저 확산시킨 후 이용자들을 유료 이용자들로 확보하는데 성공

세계 상반기 백신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2012년)



자료: 옵스와트 (2012. 6. 28)

□ PC 다섯 대 중 한 대,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

○ (맥아피) 약 17%가 백신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7.55%가 PC백신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보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PC백신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활성화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가 많음
-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PC가 상당수
- MS에 뒤를 이어 ESET가 11.2%, 시만텍이 10.3%, AVG 10.1%로 시장에서 활약

○ 24개국 가운데 싱가포르가 가장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

- 국내는 백신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은 PC비중이 17.55%로 9번째로 높은 비율
- PC백신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음

백신이 실행되지 않는 PC 비중이 높은 상위 9개국

자료: 맥아피 (2012. 6. 18)

Ⅲ.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2012. 6. 6)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음에도 마케팅 능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SW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

-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되어, 우수한 SW 기술이 정보나 자금 부족 때문에 사장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내용

ㅇ 금번 사업을 통해 선정될 예정인 10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① 먼저, 창업 아이템의 기술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에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되며,

② 기술·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위한 기술, 마케팅, 품질,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컨설팅도 지원할 예정

③ 이에 더해 SW업계 선도기업들로부터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1:1 멘토링 기회를 준비하였으며,

④ 벤처캐피탈과의 간담회나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의 유치도 유도할 예정

자료: 지식경제부(2012. 6. 6)

□ 「SW R&D 체계 개편 방안」 발표 (2012. 6. 12)

○ 그간 정부 SW R&D가 다른 HW R&D와 동일한 체계로 추진됨에 따라, SW가 지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SW R&D가 우리나라 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See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 ① 인재중심 개발, ② 결과물 비가시성, ③ 기술누적을 통한 혁신 등

- 우선, 현행 기술개발단계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SW R&D 유형을 정책목표 기준 4개 유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임

* 원천기술개발형(TRL 5단계) / 혁신제품형(TRL 8단계)

** ① 국가 혁신기술 개발형, ② 전문기업 육성형, ③ 선도기술 확보형, ④ 창의인재·기업 발굴형

-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SW R&D의 정책목표와 SW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될 예정
- 더불어, R&D 결과평가 항목과 상용화·해외진출 지원 등 他지원사업의 선정평가 항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우수 R&D 결과물의 실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 운영 개시 (2012. 6. 14)

○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기술지원, 성공모델 확산, 시장·기술정보 제공 등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

- 금년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 및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 확산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
- 2013년 이후에는 금년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

□ 선박 및 조선 IT융합분야 국제표준 주도 (2012. 6. 22)

○ 국내에서 개발한 '선박통신분야 네트워크 보안기술' 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선박 기자재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선박통신분야 국제표준을 관장하고 있는 IEC의 해상무선통신기술위원회(IEC TC80)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통신 네트워크 보안기술'이 미국·일본·독일 등 16개국으로부터 찬성지지(89%)를 받아 지난 6월 18일 신규 국제 표준안에 채택

- 특히 이번 표준기술은 선박 이더넷통신(IEC 61162-450)에 이어 국제해사기구(IMO)의 강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선박업계와 조선기자재 업계의 선행대응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향후 표준화의 시장지배력이 큰 조선IT 융합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형 조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표준화 전략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

□ 실리콘밸리 IT업계 한국인 청년인재 간담회 개최 (2012. 6. 26)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청년인재들의 모임인 K-Group과 세계 IT업계의 미래 방향과 한국 젊은 청년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

* K-Group : 실리콘밸리(S.F Bayarea)를 중심으로, High-Tech관련 분야에 공부 혹은 회사에 종사하는 한국계 인사들의 자발적 모임(회원수 : 1,811명)

- K-Group 참석자들은 현재 실리콘밸리는 '클린테크 밸리(Cleantech Valley)', 융합(Convergence)을 넘어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모델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
- 세계 IT산업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청년인재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성공모델이 되어줄 것을 당부

□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발표 (2012. 6. 26)

○ 그동안 SW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업계 등이 공동 마련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함

*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SW(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 "유지보수"가 무상(無償)의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용어 변경

○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SW의 무상유지보수 요구, 불공정 하도급 등은 전문SW기업의 재투자·R&D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SW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글로벌 SW기업은 유지관리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40~60% 수준으로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매출액의 17.1%에 불과한 실정

○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을 담고 있음

- 각 부처에서는 세부 과제별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상용SW 유지관리 관련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일정	관련부처
적정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반 조성	상용SW 제품정도 상세 제공	2012년 하반기	조달청
	합리적인 유지보수 대가 산정 체계 마련	계속	기재부, 행안부
유지 관리 관행·제도 개선	제안요청서에 상용SW 유지관리부문 상세화	2012년 하반기	지경부
	유지관리 대상 계약 체결시점 명확화	2012년 하반기	지경부
	상용SW 유지관리 특성을 감안한 계약제도 활용	2012년 하반기	기재부
	상용SW 유지관리 계약 체결 유도	계속	공정위
	하도급 대가지급 확인 철저	계속	발주기관
공개SW 유지관리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결	2012년 하반기	기재부, 지경부
SW 유지관리 인식 제고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과 서비스 고도화	2012년 하반기	각 부처
	유지관리 관련 제도개선사항 모니터링	계속	지경부, 공정위
	유지관리 명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2012년 하반기	각 부처

자료: 지식경제부(2012. 6. 26)

나. 행정안전부

□ 20억 이상 공공정보화 PMO도입 논의 (2012. 6. 12)

○ 예산 규모가 20억 원 이상인 공공정보화 사업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

○ PMO 의무화 대상은 예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인 구축 사업, 신규개발 등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구축 사업임

PMO 위탁 및 사업자 기준안

항목	기준안 내용
위탁사업대상	-예산 규모가 20억 원 이상인 구축사업 -신규 개발, 신기술 적용, 다부처 연계 등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구축 사업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 자격요건	-공공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IT컨설팅, 감리실적이 있는 법인 -공공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의 PM, 총괄감리원 경력자 3명 이상인 회사
PMO 책임자 요건	-PM 경력 6개월 이상(단 최근 3년간 20억 이상 사업) -상주감리 6개월 이상 또는 총괄감리 1회 이상(단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2012. 6. 12)

□ 1,000억 규모 정부통합백업센터, 연말 공주서 착공 (2012. 6. 17)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충남 공주시 옛 경호처 훈련부지를 용도 변경해 통합 백업센터를 구축

- 향후 통합백업센터 백업시스템에도 G클라우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르면 2015년 하반기에 가동

□ 도로명 주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 (2012. 6. 20)

○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소찾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 주소찾기 앱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배원, 택배원 등 도로명 주소 활용이 많은 직능기관과 단체에 홍보

□ 2회 연속 전자정부 1위, 경제효과 3조8천억 원 기대 (2012. 6. 26)

○ 우리나라가 2회 연속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가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

- 5년간 전자정부 수출과 IT 전 분야에 대한 수출확대 효과(간접효과)를 합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3조8천억 원(32억 달러)으로 추산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추세기준 전자정부 수출금액 17억9천만 달러는 제외)

전자정부 2회 연속 1위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만 달러)

연도	전자정부 수출액 (직접효과)	직접효과 분해		수출파급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 분해	
		1위 프리미엄 직접효과	추세기준 전자정부수출		1위 프리미엄 간접효과	추세기준 수출파급 간접효과
2012	30,000	3,733	26,267	29,400	3,658	25,742
2013	40,000	8,939	31,061	39,200	8,760	30,440
2014	48,333	12,478	35,855	47,367	12,229	35,138
2015	58,333	17,684	40,649	57,167	17,331	39,836
2016	75,633	30,190	45,443	74,121	29,587	44,534
합계	252,299	73,024	179,275	247,255	71,565	175,690

자료: 행정안전부(2012. 6. 26)

다. 방송통신위원회

□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표 (2012. 6. 22)

○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가 컴퓨팅 능력의 향상과 관리•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범서비스를 추진
- 시범서비스, R&D,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실태 파악
- 향후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신규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
-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 빅데이터 산업실태 조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 6. 22)

□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논의 (2012. 6. 12)

○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산학연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스마트워크 정책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워크 산업 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 확산, 근로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눔

○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항을 도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근로취약계층의 도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IT 산학연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제시

□ "ICT 올림픽" 개최 준비 본격 추진 (2012. 6. 13)

○ 정보통신 분야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회'를 개최

○ 2014년 우리나라 개최 전권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폭주, 사이버 보안, ICT와 기후변화, 전자파 인체노출, 개도국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 등 ICT 최고의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라. 국토해양부

□ 새로운 지능형 국토포털 서비스를 실시 (2012. 6. 1)

○ 국토포털’ 사이트(www.land.go.kr)로 통합으로 시맨틱웹 기반의 지능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식형 데이터를 구축

- 국토관련 정보를 개별적 서비스에서 통합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일원화된 서비스 접근 창구를 갖춤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안전IT시스템 국제 표준 만듦 (2012. 6. 10)

○ 폴란드, 네팔 등 세계 34개국에 보급된 국제기준관리시스템과 항공안전감독 관리시스템을 국제 표준화 할 계획

-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항공기 제작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해외 항공 IT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가능

마. 문화관광부

□ SW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생 한마당 개최 (2012. 6. 7)

○ SW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목적

- SW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SW 저작권정책 오픈 포럼’도 개최될 예정

바. 국방부

□ 국방 정보시스템 SW표준 플랫폼 개발 (2012. 6. 10)

○ 수천억 원 규모의 국방 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SW를 별도 개발해 데이터 및 SW기능 중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정보화 API 표준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핵심 정보시스템 테이터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2. 해외

□ 美, 연방항공국(FAA) 8만여 직원, 클라우드로 업무 환경 전환 (2012. 6. 11)

○ FAA는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혁신을 둘 다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

○ 오피스 생산성 향상 툴과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툴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

- 자사 임직원 6만여명과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 2만여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MS 오피스365로 전환
- MS 오피스 365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캘린더, 웹콘퍼런싱 툴을 사용하게 됨
- 연방항공국의 오피스365 전환 구현은 CSC(Computer Sciences Corp)가 맡아 7년간 클라우드 SaaS 솔루션을 연방항공국에 제공하게 되며 총 비용은 약 9100만달러(한화 약 1065억 원)에 달함
- MS는 지난 5월 30일 공공기관용 오피스 365를 발표, 엔터프라이즈용 오피스 365와 동일한 보안 표준을 내장하고 새로운 멀티테넌트 서비스를 제공
- 현재 MS의 오피스 365 이메일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미 정부기관들로는 연방항공국 외에 농무부,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캘리포니아 주. 네브라스카 주, 미네소타 주,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등이 있음

□ 美,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플랜 X'' 전략 추진 (2012. 6. 11)

○ 글로벌 사이버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무기 개발 본격화 전략 발표

- 실전용 사이버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일명 '플랜X'작전을 가동
-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민간기업과 대학, 게임업체들을 대거 참여시킨 가운데 실전투입용 사이버무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 사이버보안 위협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만 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

-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5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 플랜X에는 1억1천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

○ 플랜X의 핵심 전략은 크게 공격국가의 통신망 레이더 무력화, 전 세계 PC위치를 담은 사이버 전자지도 완성으로 나뉠 수 있음

- 플랜X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전략 펼치기 보다는 공격국가의 컴퓨터를 교란해 기존 재래식 전투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美 메사추세츠 정부, MIT와 협력해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추진 (2012. 6. 8)

○ 메사추세츠 공학대학(MIT)의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가 빅데이터에 중점을 둔 연구 프로그램 '빅데이터@CSAIL (bigdata@CSAIL)' 출범을 발표

- 패트릭 주지사는 메사추세츠 주를 빅데이터 연구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MIT가 보유한 연구자원의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차세대 데이터 석학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
- 투자금 조성 프로그램 및 인턴십을 추진하는 한편, 보스톤의 빅데이터 개발자/해커 커뮤니티 핵리듀수(HackReduce)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메사추세츠 주는 약 5만 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美 국방부, 모바일 전략 보고서 발표 (2012. 6. 8)

○ 무선 인프라, 모바일 기기 및 응용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전략 보고서 'Department of Defense Mobile Device Strategy' 발표

- 미 국방부는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또한, 기존의 웹 기반 등록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및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바일 전략보고서의 목표는 크게 인프라 확장, 이용 기준 마련,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 촉진

- 모바일 기기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 등의 정보 보안 및 공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안전한 모바일 기기 사용, 기기 간 호환성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 및 표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

□ 美 총무처, 연방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할 FedRAMP 실행 (2012. 6. 6)

○ 미국 총무처(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는 연방기관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시켜 줄 FedRAMP*가 2012년 6월 6일부터 실행된다고 발표

*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연방 리스크 및 인증관리 프로그램)

- FedRAMP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2년에 걸쳐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분야, 학계의 협력으로 개발되어 2011년 12월에 공식 런칭
- 예산관리국(OMB)은 2011년 12월 8일 FedRAMP의 실제 운영방안을 담고 있는 정책지침(Policy Memorandum)을 발표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2012년 6월 6일부터 실행

○ FedRAM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범정부적 임시 보안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됨

- FedRAMP는 클라우드 도입의 핵심 장애물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연방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 해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정부 전체에 걸쳐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평가를 표준화 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日,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도입 (2012. 6. 15)

○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6월15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야의 찬성다수에 의해 통과

- 위법이나 벌칙 규정이 없었던 업로드된 음악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을 부과

○ 한편,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협회(MIAU)는 성명서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적발될 대다수가 다운로드의 불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고생이라며 반발

-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정해진 바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확정
- 일본 내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의 범위와 유효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

□ 영국, 중소 사업자를 위한 IT 보안 실행지침 마련 (2012. 6. 18)

○ 영국 ICO는 IT 시스템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 사업자를 위한 IT 보안 실행지침" (A Practical Guide to IT Security - Ideal for Small Businesses)을 마련

- 2010년 11월 이후 개인정보 보안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15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 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적 특성이 반영된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여 왔음

Ⅳ. SW 시장 및 기술 동향

1 부문별 시장 동향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올 하반기 국내 대표 물류 기업들의 차세대 글로벌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개발이 잇따라 완료

○ CJ대한통운·범한판토스·현대로지스틱스 등 주요 물류 기업은 올 하반기 차세대 ERP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업무에 본격 적용할 계획

- 전 세계 임직원이 하나의 ERP 시스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업무 처리속도를 높여 물류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핵심 목표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ERP 구축 내용

기업	내용
범한판토스	-국내외 사업장에 글로벌싱글인스턴스(GSI) ERP 시스템 구축 작업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 가동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재무를 포함해 물류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고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통합
CJ대한통운	-오는 7월에 '차세대통합물류시스템'의 운송·보관·하역·포워딩(국제물류) 업무 영역을 가동하고, 10월경 운영·정산 부문까지 통합한 본 시스템을 가동
현대로지스틱스	-상반기까지 국내 본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ERP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 글로벌 ERP 시스템 운영을 시작

자료: 각 사 보도자료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고객관리(CRM)솔루션 출시

○ (S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과 연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관리(CRM)솔루션 '클라우드 CRM'을 선보임

- 클라우드 CRM은 기업에게 고객의 위치정보와 최단 경로를 알려주고, 지역별 고객 분포도, 트랜드 분석 등도 가능
- 잠재고객관리, 영업 기회 관리 및 고객 거래처정보관리 등을 지원하고, 마케팅관리 영역에서는 기획, 예산 등 마케팅 캠페인 관리 및 리포팅 등을 제공

○ (한국HP) 소셜미디어를 접목한 확장된 고객 관계 관리(CRM) 서비스를 선보임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소비자행동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솔루션 출시
- 기업이 신속하게 CRM 프로그램을 실행해 소비자와 대화를 증진하고 더 쉽게 소비자들을 이해하도록 함

3) SCM(Supply Chain Management)

□ 효율적 공급망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사 관점에서 '아웃사이드-인' 전략을 잘 유지

○ (가트너) '수요 지향적'이면서 회사 목표와 일치된 SCM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 경쟁력 있는 기업일수록 공급-수요-제품이 밀접하게 연계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있음
-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 전 부서의 공급망 전략을 매트릭스 형태로 정렬하고, CEO와 CFO가 주도해 시장 지향적(Market-Driven) 관점에서 모든 전략을 짜야 함

4) BI(Business Intelligence)

□ IT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

○ (포레스터) 기업들은 성공을 위해 점점 더 생동감 넘치는 BI역량을 갖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셀프 서비스 BI 툴과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B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셀프서비스의 BI를 추진해야함
- CRM과 ERP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BI 애플리케이션은 짧은 수명을 갖고 있음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한 IT기업들의 '빅데이터' 시장 공략이 한층 치열

○ 빅데이터가 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정보기술(IT)의 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중화 등으로 데이터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삼성SDS) 컴퓨터와 SW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염기서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는 바이오인포메틱스 사업을 진행 중이며, 클라우드 기반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Hadoop)'을 활용해 바이오인포메틱스 플랫폼을 구축
- (LG CNS) 오픈소스 기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업이 빅 데이터 분석을 도입할 수 있는 적용 영역을 탐색하는 한편, 사업에 맞는 빅데이터 컨설팅 제공
- (SK C&C)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 범위를 기업 내부를 비롯해 SNS와 같은 외부의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로 확대해 폭넓은 분석력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에 SNS 분석을 적용

□ IT서비스업체들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영역 다각화에 나섬

○ 공공 IT시장의 참여 제한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IT서비스 기업이 사업역량을 변화하려는 의지로 풀이

- (동양시스템즈) 새 비전인 'u-플랫폼 서비스 리딩 컴퍼니'를 선포하고, 솔루션 유통과 융복합 사업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
- (동부CNI) '마켓쉐어 1위, IT솔루션유통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의 무게를 유통으로 전환
- (코오롱베니트) '2015년 스마트 컨버전스 으뜸회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융복합 사업을 확대
- (롯데정보통신) 'The Best Value Partner, Value Innovation 2018'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기술기반의 융합 시장에 진출
- 내수시장 포화와 공공시장 위축으로 인해 IT서비스업체들의 사업 무게중심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IT서비스업체들의 핵심사업 변화 내용

기업	내용
동양시스템즈	-클라우드 시장 진출, 스플렁크 및 세일즈포스닷컴 솔루션 도입, 스마트 워크 구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주력
동부CNI	-전통적인 IT아웃소싱 사업은 영위하되 유통전문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간다는 전략
코오롱베니트	-융복합 환경에서 헬스케어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
롯데정보통신	-통합의료정보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재해복구시스템 등 IT신기술을 대거 접목한 향후 핵심 사업을 축으로 사업을 본격화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신사업 시장 동향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백업 · 재해복구(DR)센터의 대안으로 부상

○ 백업 및 DR센터는 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돼 있어 투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백업이 가능해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

-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KT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하여 3차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S자산운용 등도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2차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받고 있음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백업 센터 활용 내용

기업	내용
KT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 3차 백업센터를 운영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S자산운용은 원데이터를 자체 센터에서 보관하고 전자문서 및 메일 등의 2차 데이터 백업 용도로 활용 -일본의 IT서비스 기업인 C사 등과 백업센터 관련 제휴 논의를 진행 중
LG CNS	-일본 종합설계기업 닛켄셋케이의 데이터 보존 서비스 사업을 수주
호스트웨이IDC	-실시간 백업과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백업·DR 서비스 '플렉스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을 팔콘스토어와 함께 출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2) 모바일(Mobile)

□ 날씨, 음악, 교통 서비스, PC보다 모바일에서 웹 이용률 높음

○ (매트릭스) 날씨, 음악, 교통/위치 등 이동 중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웹 이용률이 PC에서의 웹 이용률보다 높았음

- 영화, SNS, 검색 등의 서비스들도 PC에서의 이용률 대비 각각 90%, 74%, 7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넓은 만큼 발전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음

모바일과 PC의 카테고리별 웹서비스 이용률

구분		모바일화 진행비율 (Mobile Web 이용률/ PC Web 이용률	5월 Mobile Web 이용률(n=2149)	5월 PC Web 이용률(n=12500)
모바일 강세서비스 (100% 이상)	날씨	374%	55.4%	14.8%
	음악	130%	49.5%	38.1%
	교통/위치	123%	68.7%	55.9%
PC 강세서비스 (50%~100%미만)	영화	90%	43.9%	48.7%
	SNS/커뮤니티	74%	69.6%	93.8%
	검색	74%	69.2%	94.0%
	사진/그림 등	73%	47.0%	64.7%
	동영상	70%	45.1%	64.4%
	만화	63%	19.0%	29.9%
	뉴스	59%	53.3%	90.0%
	쇼핑	58%	52.0%	89.3%
	이동전화/이메일	51%	43.3%	84.5%
PC 초강세서비스 (50% 미만)	취업/아르바이트	49%	13.1%	26.8%
	스포츠	48%	30.7%	64.2%
	게임/오락	39%	20.6%	52.5%
	금융	38%	31.4%	83.1%
	교육/어학	33%	17.8%	53.5%

자료: 매트릭스

□ 모바일 기기 활용빈도가 높은 국내 대학생들의 보안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안랩) 전국 대학생으로 한 보안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모바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위험성은 느끼고 있지만 백신 프로그램 사용 등 보안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가운데 76.5%가 악성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한다고 응답했고, 악성앱을 대비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날이 갈수록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용자 개인의 보안의식 강화가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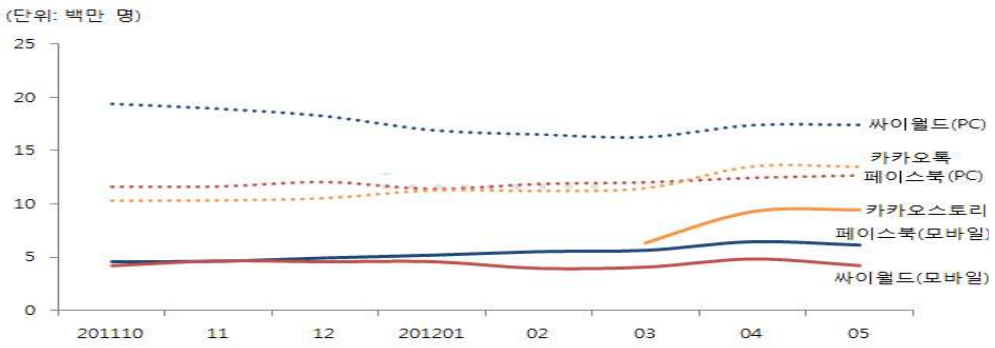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결속형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증가

○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미디어에서 기술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개인 컨버전스 미디어로 기술적 차원의 진화가 이루어 짐

- PC 기반 SNS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경험과 결합하여 모바일 SNS에 대한 활용적 차원의 확장을 가속화
- '페이스북'과 '싸이월드'는 PC에서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모바일로의 시장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카카오스토리'는 적극적인 '카카오톡' 사용자 유입 전략으로 시장 진출 초기부터 큰 영향력을 발휘

인맥 결속형 주요 SNS의 디바이스별 사용자 규모



자료: 닐슨코리아클릭

4) 검색서비스

□ 포털 업계 기업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내놓고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음

○ 네이버와 다음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 포털 시장에서 파란의 운영 중단 발표 이후 변화가 감지

- (KTH) 파란의 메일, 블로그 등 주요 서비스를 넘겨받은 다음 최근 스포츠 중심 영상콘텐츠를 대거 선보이고, '루리웹'을 중심으로 게임부문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
- (SK컴즈) 싸이월드가 트위터, 페이스북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지난해 해킹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으면서 검색점유율이 최근 2.14%까지 떨어졌고, 구글과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검색광고 제휴에 나서며 위기를 넘겠다는 전략을 세움
- (이스트소프트) 검색점유율이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알약과 알집의 인지도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섬

5) 빅데이터

□ 기업의 70% 가량이 빅 데이터 프로젝트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으로 나타남

○ (한국인포매티카) 빅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 업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빅 데이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가장 큰 과제는 빅 데이터 툴의 성숙 부재(52%),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의 지원 부재(39%) 등으로 나타남

라.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임베디드 업체들 의료기기 플랫폼 및 서비스 확대

○ (윈드리버) 윈드리버 의료기기용 플랫폼인 PMD(Platform for Medical Devices)를 선보임

- 윈드리버의 의료 기기용 SW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510K 등의 엄격한 사전 신고 및 승인이 요구되는 다양한 의료 장비의 개발에 사용

○ (인피니트헬스케어) 미국 모빌엑스(Mobile X)와 의료영상 원격판독 서비스 계약을 맺음

- 영상 저장, 전송 및 관리를 위한 PACS 서버 프로그램을 모빌엑스 데이터센터에 제공해 각 지역에서 보내오는 이미지를 통합 관리

○ (어드밴텍) 인텔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팬리스 의료용 포인트 오브 케어 제품인 'POC-W211'을 출시

- 메디컬 솔루션인 PACS, EMR, OCS 등과 호환은 물론 수술실, 침상, 간호사실, 병원내 포인트 오브 케어 장소에 고도의 이미지가 요구되는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계

마. 공개 SW 시장 동향

□ 국내 SW산업계의 공개SW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공개SW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장점으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 등 SW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핵심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공개SW의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와 SW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의 공개SW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SFLC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2 SW 기업 동향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한글과컴퓨터) 모바일오피스 '씽크프리 모바일 프로' 출시

○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에 최적화된 오피스 솔루션인 '씽크프리 모바일 프로'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

- 주요 제조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HD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겨냥한 제품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오피스 문서를 읽고 편집 가능
-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서 서식을 기본으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PDF 문서의 주석 추가·편집·저장 기능을 추가

□ (안랩) 기업용 악성코드 정보 포털 '스마트 사이트' 사업화

○ 악성코드 정보 포털 '스마트 사이트(AhnLab Smart Sight)' 서비스를 기업·기관 대상으로 본격 제공한다고 발표

-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안랩 보안전문가가 수집·분석한 고급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악성코드 발견 현황, 개별 악성코드의 증상과 특징,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URL 등

□ (더존정보보호서비스) 디지털포렌식솔루션 신제품 4종 출시

○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을 접목한 디지털 포렌식를 제공하며,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 개인정보 검색 및 관리솔루션 '에스파인더(S-Finder)', 개인정보유출 감사솔루션 '아르고스 디파스(DFAS)', 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 '디엘피(DLP)', 관제 '개인정보 추적관리 솔루션 '파이몬(PIMON)' 등으로 구성

□ (KT) 500억 원 규모의 SAP 기반 ERP 시스템 오픈 및 국내 첫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획득

○ SAP 패키지 기반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사업이 막바지에 들어가 오는 7월 2일 오픈

- KT-KTF 통합에 따라 서로 다른 ERP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등 새로운 시스템을 확장

○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부여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는 지잔해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

□ (카디날정보) 몽고DB 전용 관리제품 '모나드 매니지먼트 포 몽고DB'를 출시

○ 빅데이터 대응 시스템 도입사례에 단골소재인 NoSQL 계열 분산 DB를 실제 구축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키 어려웠던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옴

- 국내 기업들도 몽고DB 사용 시 쉽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수행케 만들어진 전용 운영관리도구

□ (와이즈넛) 표절검색솔루션 '와이즈 레퍼리(WISE Referee) v2.1' 제품을 출시

○ 모사도 분석을 통한 유사도 검출 및 리포트 하는 검색 솔루션

- 표절 검사시 1:N 문서간 표절 구간 요약 보기, 짜집기 검출, 표절 검사 후 표절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표절 문서함' 제공 등 특화된 기능을 보여줌

2012년 6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한글과 컴퓨터	씽크프리 모바일 프로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문서를 자유롭게 읽고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
안랩	스마트사이트	- '스마트 디펜스(AhnLab Smart Defense)' 기술로 수집한 악성코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 상에서 제공 - 제품, 서비스 아닌 정보를 비즈니스 모델화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더존정보 보호서비스	디지털포렌식솔루션 신제품 4종	- SaaS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
SK텔레콤	클라우드 CRM	- CRM 기본 기능 외에 지역별 고객 분포도를 비롯, 트렌드 분석과 고객 위치 파악이 가능
와이즈넛	와이즈 레퍼리 v2.1	- 논문, 리포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 문서의 모사도를 분석해 유사도를 검출 및 리포트해서 표절을 검색
카디날 정보기술	모나드 매니지먼트 포 몽고DB	- DB 모니터링, 대시보드 운영, 장비별 임계 값 관리, 기간별 통계 정보, 예경보 기능을 가짐 - 여러 분산 서버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 서버 부하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장비들의 증설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컴퓨웨어	컴퓨웨어 APM 플랫폼	-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아 수정하는 성능 관리 솔루션
루멘소프트	터치엔 세이프온	- 인터넷 뱅킹시 기존에 PC에서만 받은 본인인증을 PC와 휴대폰 2개의 채널에서 모두 인증 받아야만 인터넷 뱅킹을 이용 가능 - 암호화 및 가상 키패드, 백신 등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통합, 보안을 대폭 강화

어드밴택	POC-W211	- 수술실, 침상, 간호사실, 병원내 포인트 오브 케어 장소에 고도의 이미지가 요구되는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계
빛스캔	큐브디펜스	- P2P와 같이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 - 사용자PC 접속을 차단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차단해주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제로데이 공격에도 대비
가비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DB) 호스팅	- 웹서버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다른 업체의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비아에서 오라클 DB만을 임대해 기존 웹서버와 연동해 사용 가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해외 진출

□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해외 IT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

○ 글로벌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현인법인을 설립이 힘든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해외 IT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략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 SW업체와 협업함
- 더존비즈온 등 국내 SW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애저 기반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방안 모색

□ IT업체들 세계 의료정보화 시장의 핵심 지역인 미국 의료 시장 진출 증가

○ (삼성SDS)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솔루션으로 미국 시장 진출

- 미국 남부지역 병원 네트워크인 '크리스터스헬스(CHRISTUS Health)'와 10년간 EMR 솔루션 공급 및 협력 계약을 체결
- EMR 솔루션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기존 진료 기록 문서인 종이 차트와 관련 업무를 대체하는 시스템

○ (유비케어) 미국 전자차트(EMR) 업체 플래티넘MD(PlatinumMD)를 인수, 미국 EMR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 플래티넘MD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Santa Ana)에 설립된 웹기반 EMR 전문기업으로 주요 제품으로 '플래티넘MD EHR-EMR/PM'을 보유

□ (위세아이텍) 중국 금융권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시장 진출

○ 중국내 금융사들이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WISE BI 플랫폼'을 소개

- WISE BI플랫폼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품질을 관리해 활용하는 제품군을 포함하며, 분석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2012년 6월 국내 SW 및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

업체명	해외 진출 현황
삼성SDS	- 크리스터스 헬스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EMR 솔루션 공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전체 병원에 적용
유비케어	- 미국 EMR 업체 인수로 세계 의료정보화 시장의 핵심 지역인 미국 시장에 진출
위세아이텍	- 중국내 금융사들 대상으로 WISE BI 플랫폼 소개
알서포트	- 알서포트의 리모트콜 모바일팩이 일본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스웨덴의 휴대폰 제조사 도로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될 예정
인피니티 헬스케어	- 영상 저장, 전송 및 관리를 위한 PACS 서버 프로그램을 모빌엑스사 데이터 센터에 제공해 각 지역에서 보내오는 이미지를 통합 관리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SK C&C) 말레이시아 유력 기업인 'MMC그룹'과 제휴해 동남아시아 지역 IT서비스 수출 및 솔루션 사업 발판을 마련

○ MMC그룹은 교통, 물류, 에너지, 유틸리티, 중공업, 건설 등 분야에 17개 관계사를 두고 연 매출 3조4천억원, 총 직원 수 4천700여명을 기록한 대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MMC그룹 I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

- 말레이시아 현지 공공, SOC, 기업대상 IT서비스 사업 개발과 주변 동남아지역 국가 진출 기회 찾기에 함께 나설 방침

□ (SKT)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를 통해 '헬스-온(Health-On)'으로 명명된 헬스 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착수

○ 헬스-온'서비스는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가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고, 개인 질환과 건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는 것이 특징

- SK텔레콤의 모바일및 ICT기술과 접목시켜 혁신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

□ (DK유엔씨) 국내 기업용 솔루션 업체 굿모닝아이텍과 함께 가상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

○ 이번 MOU는 DK유엔씨와 굿모닝아이텍이 가상화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인프라를 제안하고 구축 서비스를 제공

- 제조, 대학, 병원 등 다양한 구축 경험을 쌓아온 DK유엔씨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산업 군에 안전하고, 관리가 쉽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Ⅴ. 주요 리포트

1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현황과 선도사례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12.06)

가. 개요

□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R&D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Open & Global R&D를 추진하는 기업 증가

○ Open & Global R&D를 통해 혁신의 원천을 외부나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발원천을 다양화 할 수 있기 때문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Open & Global R&D에 대한 관심 증가

□ Open R&D와 Global R&D의 통합관점에서 한국기업의 R&D 추진현황과 성과 및 선도 사례를 분석

나.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현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Open & Global R&D'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양적으로 조사 대상 966개 기업 가운데 Open R&D를 추진하는 기업은 369개 사로 비중이 38%이고, Global R&D를 추진하는 기업은 81개 사로 비중이 8%에 불과

- 한국에서만 제품 개발을 하는 Local 유형이 92%로, Global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기업 내부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Closed', 기업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Open'으로 구분

※ 활용자원이 본국에 있는 경우 'Local', 해외에 있는 경우 'Global'로 구분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현황

	Local	Global
Open (기업 외부)	Local-Open (307개사, 32%)	Global-Open (62개사, 6%)
Closed (기업 내부)	Local-Closed (578개사, 60%)	Global-Closed (19개사, 2%)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Global R&D 활용 비율이 21%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Global R&D 활용 비율은 4%에 불과

○ 산업별로는 IT와 자동차 산업의 Open & Global R&D 비중이 높음

- 자동차 산업의 경우 Global-Open 유형과 Local-Open 유형의 비중이 각각 14%와 42%로, 제조업 평균인 6%와 32%를 크게 상회
- IT분야에서는 부품 및 통신기기의 Global-Open 비중이 높은 반면, 컴퓨터, 사무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Local-Closed 유형 비중이 높음

□ 질적 측면의 성과분석 결과도 미흡

○ 한국 기업들은 Open & Global R&D를 통해 비용절감, 기존 제품 대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규제 대응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Open & Global R&D를 추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발기간이 더 소요되고 품질 개선과 제품 다양화에 기여하지 못하며 혁신 정도도 높지 않음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 성과

항목 구분	품질 개선	원가 절감	기존 제품 대체	제품의 다양화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 시장 개척	산업 기술 표준 달성	국내외 규제 대응	혁신 정도	개발 기간
Global-Open	3.8 (0.87)	3.2 (0.99)	3 (0.24)	3.2 (0.03)	3.2 (0.83)	3.2 (0.96)	2.2 (0.95)	2.4 (0.99)	7.3%	19.7 (0.99)
Local-Open	3.6 (0.06)	2.9 (0.98)	3.3 (0.95)	3.4 (0.83)	3.4 (0.98)	3.1 (0.99)	2.1 (0.99)	2.1 (0.99)	0.3%	17.8 (0.99)
Local-Closed	3.6	2.6	3.1	3.2	3	2.7	1.7	1.7		13.0
Global-Closed	3.8 (0.67)	2.8 (0.37)	3.5 (0.76)	3.7 (0.87)	3.7 (0.96)	2.9 (0.38)	1.6 (0.36)	1.9 (0.52)	1.8%	17.5 (0.91)

※ ( )의 수치는 Local-Closed R&D와 다른 유형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신뢰도
※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

다.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 사례

□ 선도기업의 R&D 추진 사례
○ 한국 기업의 미흡한 성과를 고려하여 Open R&D와 Global R&D를 추진하는 선도기업의 추진사례를 분석

유형별 선도기업의 사례 선정

	Local (본국)	Global (해외)
Open (기업 외부)	Local-Open 「지엘팜텍」	Global-Open 「아모레퍼시픽」
Closed (기업 내부)	Local-Closed	Global-Closed 「현대모비스」

○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고객)과 환경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pen & Global R&D를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및 개발기간 단축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제약 산업 연구대행 기업 '지엘팜텍'은 Open R&D의 선도 기업으로써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의 니즈를 포착하고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는 Open R&D를 추진

- 고객사 요청품목, 특허분석, 플랫폼 기술과의 접목 등을 고려하여 비뇨기 분야의 개량신약 개발을 대행
- 각 사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비를 분담하는 공동개발체제를 구축

○ 자동차부품기업 '현대모비스'는 Global R&D의 선도 기업으로써 최대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현지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모비스의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를 설립

- 2011년 현재 국내 마북리 기술연구소와 미국, 중국, 독일, 인도의 해외연구소 등 총 5개의 연구소를 운영 중

○ 소비재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자체 R&D 역량을 강화하고, Open R&D의 성공 경험이 축적되면서 Open R&D와 Global R&D를 본격 추진

- 자체 연구기반 확보 > 국내 대학 공동 연구 > 해외 대학 공동 연구 > 해외 R&D 지사 설립 > 해외 R&D 네트워크 기반 공동 연구 활성화 순으로 R&D 혁신을 지속

다. 한국 기업의 Open & Global R&D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사점

□ 초기 단계로 평가되는 한국기업의 Open & Global R&D 전략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 추진기업 수를 늘리고 선도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난 혁신제품 개발과 개발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

○ 기업전략과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

□ 기업 차원에서의 시사점

○ 막연한 Open & Global R&D 추진을 지양하고 최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어학전문가보다 기술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임
- 마케팅 부문과 R&D부문을 통합하여 Open & Global R&D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해외 연구소의 독자적인 개발역량을 개발해야 함

□ 정책 차원에서의 시사점

○ Open & Global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표준 계약서를 제시, 지적재산권 인력 양성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의 확대가 필요

- 취약한 중소기업의 Global R&D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정부의 해외 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개방형 해외연구소'의 운영 지원 제안

2 소셜미디어의 힘: '잠자리 효과(The Dragonfly Effect)' (POSCO경영연구소, 2012.06)

가. 개요

□ 소셜미디어 기반의 활동 및 캠페인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중요한 커뮤티케이션 수단으로 인식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 수가 2012년 약 10억 명에 도달할 전망
- 손쉽게 의견과 정보를 확산 시킬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활용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 필요

□ '잠자리 효과(The Dragonfly Effect)'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

- 4개의 날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잠자리처럼 효과를 내기위한 통합이 중요
- 집중하기, 이목 끌기, 참여시키기, 행동 유발하기 등 4가지가 필수 요소가 필요

□ 기업들도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해 '잠자리 효과'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소셜미디어는 내부소통, 마케팅 및 홍보, 연구개발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증가할 전망
- 잠자리 효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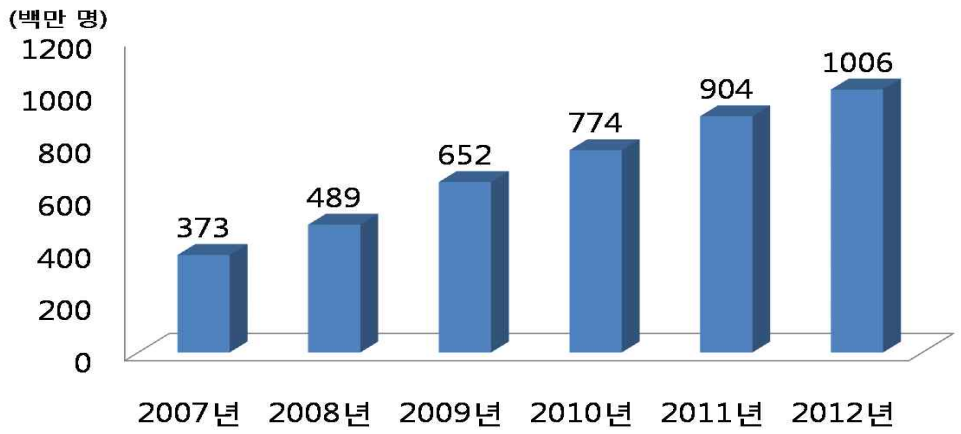
나. 소셜미디어의 파급과 잠자리 효과

□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는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정치 등 전반에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세계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 수는 2012년 약 10억 명에 도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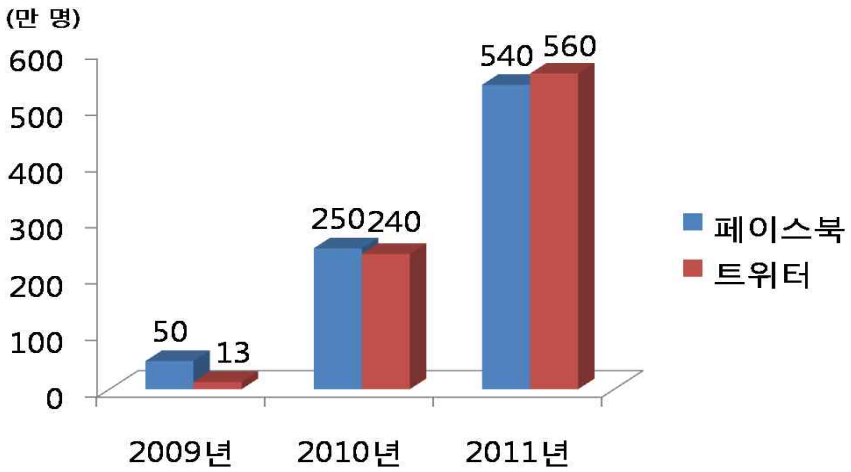
- 2011년 말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540만 명, 트위터 사용자는 560만 명에 이르면서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세계 SNS 사용자 수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

국내 SNS 사용자 수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

□ 기업들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필요

○ 소셜미디어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의견과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고, 개인이나 조직이 쉽게 활용 가능

- 기업들이 유행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준비 없이 소셜미디어 활용을 시작했다가는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들도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모델인 '잠자리 효과'를 활용

○ 4개의 날개를 혼합해 비행하는 잠자리처럼 기업들도 잠자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4가지 필수요소의 통합이 중요

- 집중하기, 이목 끌기, 참여시키기, 행동 유발하기의 4가지 요소 결합이 중요

다. 잠자리 효과를 위한 4개의 날개

□ 집중하기: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에서 시작

○ 방향성, 동기, 운영규칙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집중된 목표 필요

-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분명한 목표와 측정기준을 정하여 테스트를 통해 피드백을 수용

○ 집중된 목표는 'HATCH 원칙'에 입각해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 Humanistic(인간성), Actionable(행동가능성), Testable(검증가능성), Clarity(명확성), Happiness(행복)의 원칙을 가지고 목표 수립

□ 이목 끌기: 범람하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잠재적인 대상자의 시선 집중 유도

○ 마케팅과 광고의 시각으로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힘들어짐

-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중들은 광고나 메시지에 면역이 발달

○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 준수가 중요

- 개인화된 관심 제기, 의외성 있는 관심거리 제공, 시각적인 메시지로 관심 유발, 감각과 결합된 관심 창출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끔

□ 참여시키기: 대상자들의 감정, 애정, 공감을 불러일으켜, 목표에 심정적으로 연관

○ 목표에 대한 대중의 공감과 애착,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

- 소셜미디어 자체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소통'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

○ 'TEAM' 원칙을 활용해 대중의 참여 유도

- **T**ell a Story(감동적 이야기), **E**mpathize(공감 있는 소통), be **A**uthentic(진정성), **M**atch the Media(미디어와 어울림)

□ 행동 유발하기: 대상자들이 주변인들을 더 끌어들이고 실질적 행동 변화 유도

○ 영감을 불러일으켜 '행동 유발하기'를 활용해 이 활동에 참가

- 대중과 깊이 소통하고 영감을 불러 일으켜도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움

○ 대중이 관심을 보인 부분에 대해 실제 변화를 일으키도록 요청하여 사람들의 행동 유도

- 사람들에 요청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게임행위 · 경쟁 · 유머 · 보상과 같은 요소를 부여해 즐겁게 행동하게 함

마. 종합 및 시사점

□ 기업의 소셜미디어는 내부소통, 마케팅 및 홍보, 연구개발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증가할 전망

○ 잠자리 효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Ⅵ. 월간 SW 이슈 분석

1 스마트 폰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자 경험 전략

가. 개요

□ 스마트 폰 시대에는 이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경험 제공이 중요

○ 이용자들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변화를 비즈니스에 활용

- 스마트 단말 크기, OS, 고객 유형별로 달라지는 이용 행태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스마트 폰 이용 실태

□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시대

○ 방통위는 2012년 2사분기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2,482만 명('12.02)을 뛰어넘는 규모
-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이용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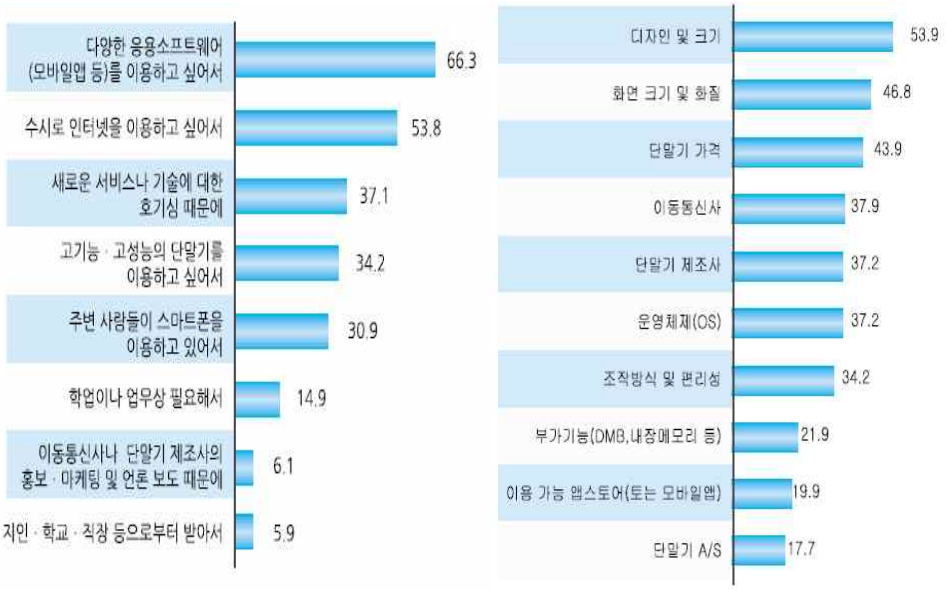
○ 스마트폰 이용자의 63.6%가 '다양한 응용SW(모바일앱 등)를 설치·이용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서(53.8%)' 이용한 경우도 과반수임

-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37.1%)', '고기능, 고성능의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어서(34.2%)',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서(30.9%)'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30% 이상임

□ 스마트폰 선택 시 고려사항

○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반수(53.9%)가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 폰 선택 시 '디자인 및 크기'를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화면크기 및 화질(46.8%), '단말기 가격(43.9%)', '이동통신사(37.9%)' 등의 순임

스마트폰 이용계기(좌) 및 스마트폰 선택 시 고려사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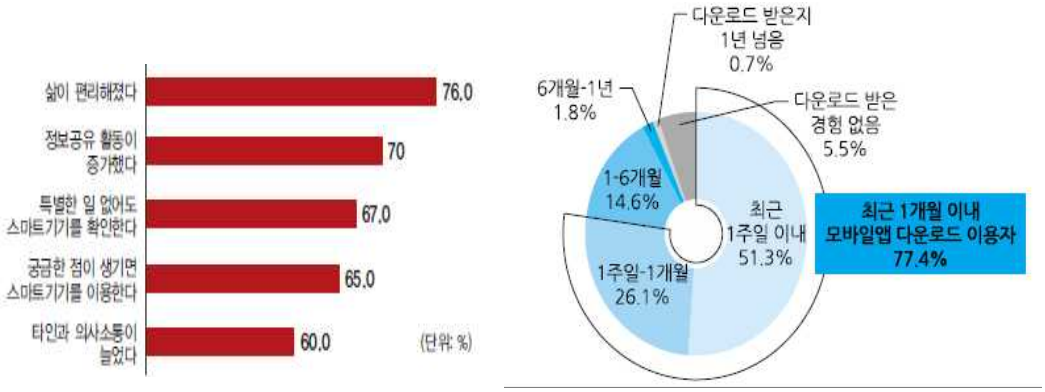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01)

□ 스마트폰 이용자의 생활 변화 및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황

○ 스마트폰 이용자의 76.4%는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정보 공유 활동이 증가'한 경우는 69.5%임

○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최근 1개월 이내('최근 1주일 이내' 51.3%, '1주일~1개월' 26.1%) 모바일앱을 다운로드받은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이용자의 생활 변화(좌) 및 최근 모바일앱 다운로드 시기(우)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01)

다.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용자 참여

□ 정보 소비자에서 정보 생산자로

○ 공급자-소비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를 제공

- KT '올레펍', SK플래닛 '트레이드올북스', 교보문고 '퍼플' 등 출판 전용 툴을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책이나 잡지를 말들 수 있도록 함

□ SNS기반 정보 유통으로 '소셜 여론' 주도

○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하면 여론 형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마케팅 활동에서 이용자 중심의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소셜 여론'에 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
- KT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전문 트위터인 올레모바일(@olleh_mobile), SK텔레콤의 소셜 여론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스마트 인사이트' 서비스 출시 등

□ 정보 소비: ‘단순 정보 검색’에서 ‘상황 해결’로

○ 스마트 단말의 이동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아 일상생활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상황 해결’용도가 강해짐

-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정보로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이용자의 변화에 맞춘 혁신적 경험 제공이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의 비즈니스 성공 열쇠

○ 통화와 SMS 감소 등 이동통신 업계의 수익모델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용자들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혁신적인 이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함

2 모바일 지도전쟁

가. 개요

□ 구글과 애플의 IT지도 플랫폼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

○ 최근 애플이 자사 iOS6(새 운영체제)에 구글 지도를 빼고 대신 3D 기능이 강화된 IT지도를 독자 개발

- 3차원 기술로 구현되는 IT공간이 향후 포탈에 버금가는 거대 수익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시장을 놓고 최강자 기업들이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음
- 지도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와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만나는 거대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중요

나. 애플과 구글의 지도 서비스 공개와 모바일 헤게모니 쟁탈전

□ 애플과 구글은 항공 촬영 영상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를 잇달아 공개

○ 구글이 선보인 3D지도는 항공기가 공중에서 45도 각도로 지상을 내려다보며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공

- 구글은 인구 3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이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힘
- 구글은 지금까지 '구글 어스'와 길거리 촬영 지도 '스트리트뷰'를 제공

3D 구글맵으로 본 샌프란시스코 시내

○ 애플은 독자적으로 '플라이오버(flyover)'라는 이름의 입체 지도 서비스를 내놓음

- 애플은 이를 통해 구글맵을 iOS 기본 서비스에서 몰아내는 계기로 삼으려 함
- 구글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구글맵을 아이폰에 기본 서비스로 탑재해 제공, 구글의 모바일 매출의 40%를 차지
- 기존 iOS 단말기에서 서비스되는 구글맵 관련 매출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당장 구글의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지도 시장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광고시장 확대가 요인

○ 나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식당 등 모든 찾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음성 기반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 기술이 더욱 발전·확산되는 것도 한 요인
- 애플의 시리(siri)를 이용해 검색과 지도서비스를 연계한 음성 검색 서비스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구글 검색결과를 제외시킨다면,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음

○ 개발자를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 애플이 고객의 호응을 얻을 만한 지도의 품질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전쟁 승패의 관건

□ 경쟁업체들의 모바일 전쟁 참여 전략

○ 노키아는 차량용 웹과 모바일을 함께 결합하면 지금까지 지도 분야에서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

- 자사 지도 플랫폼이 196개국 1억7,600만대의 단말기에서 5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힘(전세계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80% 이상)
- MS는 모든 윈도우폰 8 기기에 노키아의 지도 SW를 설치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지원, 지역 정보도 알려주도록 할 계획

○ 아마존은 3D 지도 기업 업넥스트(UpNext) 인수를 추진

- 업넥스트 HD 지도는 미국 내 50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3D 매핑, 탐색,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등에서 사용 가능
- 태블릿PC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킨들파이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됨